

2017 인문자연탐사-계룡산을 탐구하다

동학사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포토툰 제작

A-1조 강권호, 강두경, 강태원, 김이름

-목차

1. 탐구 동기
2. 실제 답사한 것들
3. 포토툰 제작 과정
4. 기대효과
5. 소감

1. 탐구 동기

인문자연탐사 주제인 '계룡산을 탐구하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본 것은 첫째로 '어디에서 탐구를 진행할까?'라는 질문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분야를 탐구하고, 그것을 계룡산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다. 수통골, 동학사, 갑사, 신원사 네 곳의 장소 중, 우리 모두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동학사를 탐사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다. 계룡산의 '자연'에 대해 탐구해 볼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고, 자연 이외의 인프라적 요소를 탐구해 볼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계룡산 국립공원까지의 접근성을 분석해 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 우천 상황이라는 제약 조건 속에서 우리는 동학사의 '역사'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찰은 최소한 몇백 년이 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동학사는 신라 시대에 건립되어 천 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많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탐사의 큰 틀을 잡은 후, 우리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역사'라는 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할까?'라는 고민이었다. 역사를 재미있게 표현하고, 이를 안에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했다. 우리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후에 '사진툰'이라는 방법으로 역사를 표현하기로 했다. 동학사 곳곳에서 사진을 찍은 후, 이를 바탕으로 만화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다.

2. 실제 답사한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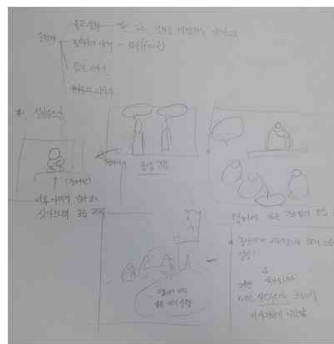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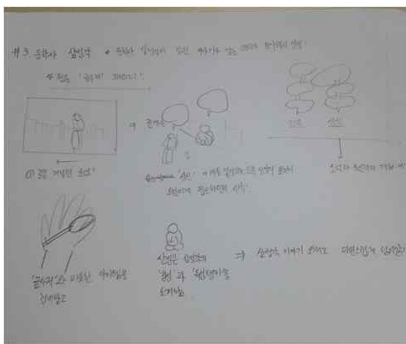
사실 우리 조는 이 주제를 정할 때 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접근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관광객들에게 설문 조사를 받을 계획을 했지만, 탐사 당일 우천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다. 동학사의 '역사'라는 주제를 정한 후에는 동학사에 직접 올라가서 동학사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찾아보았다. 동학사가 창건된 과정, 발전한 과정이나, 동학사에 있는 각 건물들의 특징들을 알아 보기도 하였다. 그 결과, 동학사가 창건되어서 현재에 이르는 과정과, 동학사 각 건물들에 얹힌 설화를 설명해 보기로 하였다.



3. 포토툰 제작 과정

우리는 이러한 동학사의 곳곳을 관찰한 후, 우리가 표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동학사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동학사가 왜, 어떠한 과정으로 지어졌는지와 발전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동학사의 모습은 어떤지를 중심으로 만화를 제작하기로 했다. 또한 동학사의 삼성각이란 건물에 얹혀 있는 설화도 만화로 표현해 보기로 하였다.

우선 만화를 그리기 전에 만화에 넣을 대사와, 내용 배치를 먼저 고민해 보았다. 간결한 대사와 간결한 그림을 이용해서 콘티를 우선 제작했다. 콘티를 제작할 때는 동학사의 역사 중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컷으로 표현할 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제작했다.



이러한 콘티를 제작한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포토툰에 들어갈 사진 하나하나를 어떻게 제작할 지에 대해서 회의했다. 비현실적이거나, 좋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제거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극본을 수정했다. 그런 후에는 동학사에 올라가서 직접 관련된 사진을 찍었다. 학교에 돌아온 후에는 이러한 사진들을 하나하나 편집하여, 최종적으로 포토툰을 제작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인문자연탐사를 통해서 동학사의 역사를 알리는 포토툰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나아가서 동학사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동학사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동학사 앞에 있는 글로 된 안내판을 읽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포토툰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재미있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포토툰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학사에 대해 알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은 우리 문화재, 나아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